왜 절마다 '의식'이 다른가?

어느 종교든 사상(수행)과 신앙의례를 핵심적인 두 내용 축으로 한다.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두 수레바퀴인 것이다. 어느 한편에 치우침은 종교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삼국~고려의 1000년 불교는 양자의 조화를 바탕으로 성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조 이래 사상과 수행의 쇠락으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는 역설적으로 속화된 신앙의례의 번성을 통해 보완되었다. 일제 시대 이래 불교 정화를 주도한 수행승들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신앙의례의 간소화, 심지어는 기본 예경 외 의례의 폐지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현대불교의 장자교단인 조계종은 종단의 분규와 갈등 속에서도 개별 사찰이나 단체에서 많은 법요집을 간행하였고, 광덕, 월운 스님 등에 의해 선구적인 한글 법요집이 상재되었으며, 1998년에는 개혁종단에 의해 통일법요집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시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례의 종단적 통일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전통의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의례의 현대화를 이루려는 무리한 시도가 처처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 외면 속 '제각각' 풍토
불교의례委 구성 '모본' 제시

이러한 불교의례의 난맥상은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조계종의 종파로서의 정체성이 거론될 수 있다. 정화과정에서 수행자 중심의 선종을 표방하며 종교의례를 경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석문의범> 등 전통의례를 비불교적이고 번잡하다 하여 매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계종이 모든 의례를 '선종의례'로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재편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의례의 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스님들에 대한 의례 교육이 제도화된 것은 최근 수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관심의 부족과 교육체계의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신도들에 대한 의례 교육은 관심 밖이다. 승속을 아우르는 의례의 재교육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한국불교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의식 예문의 정비와 현대화(한글화 포함), 의식 절차의 정비는 문제 해결의 방도로 수없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종단의(혹은 범불교계의) 권위 있는 기구는 아직도 설립되고 있지 않다. 아직도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한국불교의례위원회(가칭)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는 의식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큰스님(강백), 의식 전문가인 법주, 지역(본사) 단위 대표자등 스님을 주축으로 하여 의식 연구 전문가, 국어학자와 문학자(한글화), 각 예술(음악, 무용, 미술장엄) 전문가 등이 포진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결코 일회적인 과제풀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연구와 대중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5년이나 10년 단위로 불교의례의 모본(母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진철승(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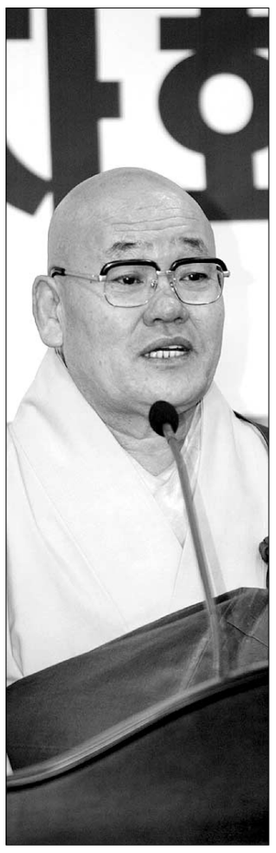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교육제도 개선의지 강한 법장스님 신년회견

"자질 향상 없으면 발전도 없다"

선교육 후득도…의무교육 6년
승려노후복지 기반구축 등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종단 운영방침을 종합하면 종단 내부적으로는 승가교육제도 개선 및 승려노후복지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외부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으로 대사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승가교육제도 개선. 법장 스님은 "현 승가교육 제도는 종단발전과 인재육성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승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 이제 승가교육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대대적 개편 방침을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승가가 인천의 사표로서 안목과 위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4년간 공부한 뒤 사미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교육까지 합쳐 최소 6년은 의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장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할 해당국가 스님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3층탑과 대웅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복원불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찰예산제도를 도입해 재정 투명화를 꾀하고, 주지 인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도 △수행체계 정립 △승려노후복지 기반 구축 △징계자의 사면복권 실현 △청년 및 군 포교 강화 △인터넷 포교 활성화 △선의 대중화 △종단 조직 및 종무 운영 혁신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1문1답이다.

▶승가교육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1년에 한 번씩 행자집체교육을 하고 이후에 4년 동안 내 · 외전을 모두 가르친 뒤 사미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찰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는.

-수지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직할사암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에 매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

-북한산 문제는 자연이 생명이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책 및 개발사업에 있어 경제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이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성직자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계사 복원의 구체적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 상반기 중 3층탑과 대웅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복원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현대아산 측과 실무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간화선 수행지침서에 담길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간화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수행법들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 "초미의 관심"

취지는 '공감' 방법은 '더 신중히'

소양쌓기 등 절실…효율성 극대화
지식위주 등 문제…종합검토 필요

승가교육제도 개선이 올해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 스님이 되고 난 후의 재교육이 아닌 스님이 되기까지의 교육체계 및 내용이 초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세부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현행 제도와 문제점

먼저 현행 제도를 보면, 출가한 뒤 6개월에서 1년간의 행자교육을 마친 뒤 조계종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행자교육원(21일간의 집체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사미(니)계를 받도록 돼 있다. 이후 강원과 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4년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뒤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니)계를 받는다. 다시 말해 4~5년의 의무교육을 마쳐야만 정식으로 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강원과 선원이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중앙승가대나 동국대를 졸업하고 강원이나 선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강원이나 선원을 졸업하고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전문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8년간 기본교육에 매달리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교육내용도 문제다. 전통과 현대식 교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한 교육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다가 비구계를 받지 않아도 스님노릇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95년 이후 통계를 보면 행자교육을 마치고도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지 않는 사미(니) 비율이 30%를 넘는다. 결국 현행 제도는 스님 아닌 스님을 배출해내고 있는 셈이다.

■개선 방향

법장 스님이 제시한 방향은 최소한의 6년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4년간 내외전을 포함해 영어, 설법, 의식까지 모두 배우게 한 뒤 사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과 선원을 전문대학원 형태로 전환해 이곳에서 2년간 공부를 마쳐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교육기간이 1~2년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기간도 그렇지만 예비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물론 어학 등 기본 소양 교육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계다가 2년의 대학원 과정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진행되나

2월 중 발족 예정인 개선추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장 스님이 제시한 방향과 다른 견해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 교직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교육 관계자들은 승가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상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묵 스님(불국사 승가대학 교수)은 "정서교육보다 지식 위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강원을 전문학림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이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다른 종교에선…

▶개신교 : 약 60여개 교단이 있으며, 교단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학대학(4년)과 신학대학원(3년)을 졸업해야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2년간의 실습(인턴)과정(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는 것)을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교육연한은 9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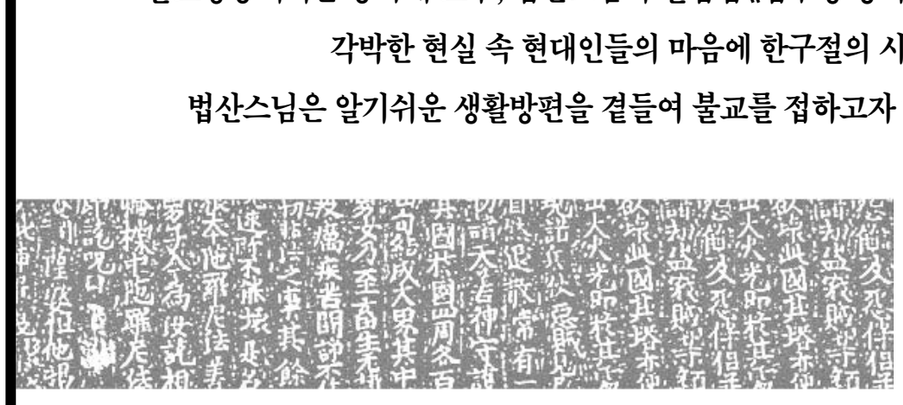
▶가톨릭 :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가톨릭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신학대학 중 한 곳에 입학해 7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졸업하면 서품을 받게 되고, 정신으로 신부가 된다. 교육과정에는 교양과목 외에 심리, 사회, 문화, 논리, 철학, 사상사 등 문화적 소양을 위한 커리큘럼이 포함돼 있다.

▶원불교 : 먼저 원광대 원불교학과나 영산에 있는 원불교대학교의 4년 과정과 교당이나 각 기관에서 2년 간의 간사생활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1차 교무자격검정고시를 보게 되고, 합격하면 원불교대학원대학에 진학해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교무가 되기까지는 8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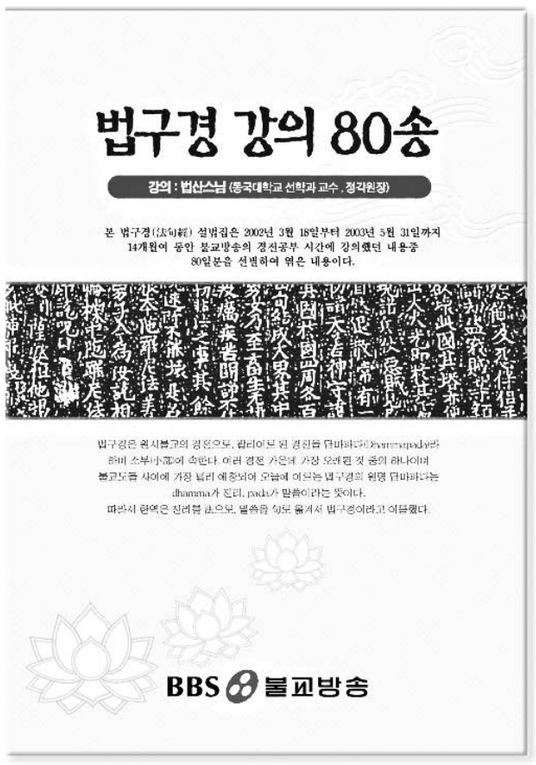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